

민평당, 공식출범...“캐스팅보트 자신”

초대 대표-조배숙 · 원내대표 장병완 · 선대위원장 김경진 ‘3톱 체제’ 국민의당 당적 비례대표 3인도 참석...이용주 “의결권 우리한테” 주장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창당대회에서 조배숙 창당준비위원장과 참석자들이 깃발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국민의당을 탈당한 호남 의원들이 6일 민주평화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창당 2년 만에 사실상 이혼을 하고 각자 도생에 나섰다.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을 개최하고 당 지도체제를 구성했다.

민평당을 이끌 초대 대표에는 4선 조배숙 의원이, 원내대표에는 3선 장병완 의원이 추대돼 최종 선출됐다. 민평당은 또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김경진 의원을 선임하면서 사실상 3톱 체제로 당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중량감 있는 중진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맡아 창당 초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한편, 초선 김경진 의원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며 패기있는 모습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당 최고위원으로는 김경진 의원과 함께 운영일 의원, 배준현 전 국민의당 부산시당위원장 등 3명이 추천됐다. 사무총장에는 정인화 의원

이 추대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향후 추가 합류할 의원을 대비해 위해 당분간 비워두기로 했다.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경진 의원은 창당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직 정권 잡기 위해 목적이 아닌 방향성도 없이 합당을 하려고 했던 분들과는 도저히 정치를 같이할 수 없었다”며 “창당대회를 열고 첫 걸음을 시작한 만큼 전국 당원과 함께 민생중심 정당이 되어 국가 개혁 등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원직 유지를 위해 국민의당에 당적을 두고 있어야 하는 비례대표 3인도 이날 창당대회에 참석해 민평당과 활동을 함께해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에서 출당 시키지 않는 한 자진해서 당을 떠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은 민평당 내에서 핵심 당직을 맡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평당은 당적을 바꿀 수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감안해 당헌당규에 당원이 아닌 사람도 당직을 맡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민평당 측은 비록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도 캐스팅보트를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평당은 최대 19석을 확보해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민평당은 의결권 기준으로 19석”이라며 “실질적 캐스팅보트는 우리한테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이재용 집유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정경유착 끊어야” 강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경유착을 끊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이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으로 이어진 구시대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히 봤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회여대 비리, 차은



택, 장시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이 삼성 재판에서 인정이 안됐다”고도 문제 삼았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전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으며,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당분간 중립지대서 정치와 거리 둘 것...한국당 복당 생각 안 해”

“미래당, 정책적 융합으로까지 가긴 힘들 것”

바른정당을 탈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6일 “당분간 중립지대에 있으며 정치와는 거리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정당 탈당 이유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저는 그동안 여러차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어제 바른정당이 공식적으로 합당간 가결을 해서 당적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월)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물리적인 통합을 하고 있는건데 길게 보면 정책적 융합으로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제 생각과 탈당 의사를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에게 알렸다”고 덧붙였다.

향후 거취를 놓고 원희룡 제주지사과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 전 시장은 “제 탈당 결정에 있어 다



른 분들과 보조를 맞춘 건 없다”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창당 발기인으로 바른정당에 입당해 최고위원을 맡았다. 당시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을 당의 대선 주자로 영입하려 했지만 반 전 총장이 같은 해 2월1일 불출마를 선언하자 특별한 활동 없이 종로구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해왔다.

바른정당은 지난 5일 당원대표자회의를 소집해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가결했다.

지난 2일 통합신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13일 통합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B측 “탁자 위로 손 잡아 초청하며 밑으로 발길질하나”

조해진 “범죄자로 낙인 찍어놓고 오라는 것” 힐난

친이계로 분류되는 조해진 전 의원은 6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의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한 데 대해 “일부 격양된 참모는 정부가 탁자 위로 손을 잡아끌면서 초청하면서 탁자 밑으로는 발로 발길질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가야 되겠다는 거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한지열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상당히 격양된 분들이 그런 말을 했고 또 많은 분은 의연하게 가는 모습이 보기 좋

다. 국민 보기에 좋을 것이라고 말한 분도 있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검찰이나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모욕주고 망신 주고 하는 과정에서 (평창올림픽에) 참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가서 국제사회의 통합, 화합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은 도움 안 되겠는가. 평창올림픽 성공이나 국력에 도움이 안 되겠는가 하고 무거운 마음에 수락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본인에 대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주범이라고 규정해서 구속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범죄자로 낙인찍어놓

고 오라고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조 전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한 데 대해선 “심부름하는 것에 불과한 일을 기소하면서 그분에게 지시하고 명령했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진술도 엇갈리거나 본인에게 직접 확인도 안 된 상황을 가지고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인 뒤 “그동안 검찰의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복심이라고 이야기했

던 분들의 진술도 검찰 안에서 바뀌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 것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여러 사례를 보면 초기에 검찰이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나중에 다시 바뀌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한 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판결 같은 경우에도 특검은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5년밖에 안 나왔다”고 말했다.

뉴시스

지역공감·이해정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